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분양 카운트다운

24일 특별공급 25일 1순위 청약접수 당첨자 내달 1일 발표

익산 최고 입지의 랜드마크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분양이 시작됐다.

도내권에서 가장 인기 높은 아파트 브랜드로서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만큼 이 단지의 분양 일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는 지난 19일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2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실시하며 25일에는 1순위 청약을 접수 받는다. 당첨자는 11월 1일에 발표되며 12~14일(월~수)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익산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익산 분양시장의 새 역사를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양3차 오투그란데를 비롯해 배산 제일 오투그란데 등 앞서 익산에 공급된 오투그란데 아파트들이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익산의 주택 수요 사이에서 이번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분양 소식은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다"며 "이제껏 익산에 공급된 단지와 비교해 입지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인 만큼 청약과 계약에서도 큰 성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택 노후도 심각한 익산의 최중심 입지 갖춘 새 아파트로서 인기몰이

익산은 입주 1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전체 공급량의 86%에 달하며 새 아파트와 노후 단지의 가격도 3.3㎡당 수백만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만큼 신규 주택이 부족한 곳이어서 모현동의 새 아파트인 이번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단지가 들어서는 모현동은 23번, 27번 국도를 비롯해 KTX익산역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농협하나로마트, 모현동주민센터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익산에서도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다. 배산택지6호공원, 모현공원, 배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이리모현초, 영만초, 이리남중, 단지인근 익시립모현도서관 위치 등 뛰어난 학군도 자랑거리다.

▲주부수요를 배려한 설계와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완성도 높은 상품성까지 갖춰

익산 최중심 입지와 최고의 브랜드 파워 못지 않은 뛰어난 상품설계도 갖추고 있다. 우선 전북 최초 히든 주방을 비롯해 아이의 안전한 스쿨버스 승, 하차를 돕고 엄마들이 보다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맘&키즈 스테이션 등 주부를 위한 설계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필터 교체형 첨단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넉넉한 수납공간, 고급욕실 등도 적용될 예정이며 모든 가구와 공용부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태양광 모듈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2층, 5개동, 총 33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 구성으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및 희소성을 갖춘 전용 118㎡으로 구성된다.

한편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평동로 632(인화동 1가 134-3번지)에 위치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조감도

전국체전 군산출신 선수단 3위 달성 '톡톡'

금메달 3개 · 은메달 4개 · 동메달 4개 획득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가운데 군산 출신 선수단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전라북도 종합순위 3위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대회 첫째날인 지난 12일 군산대학교 소속 박지윤 선수의 배드민턴 여자대학부 단체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에어로빅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김한진 선수는 22.300점의 기록으로 군산출신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조정 쿼드러플 스컬 종목에서 군산시청 소속 여자일반부와 탁구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 박민주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다. 연일 메달 행진을 펼친 군산 선수단은 군산대학교 소속 박지윤 선수가 배드민턴 여자대학부 단체전, 군산시청 소속 김영래 선수가 조정 여자일반부 무타페어, 군산대학교 소속 김미연 선수 등 5명이 여자대학부 단체전, 펜싱 에페 종목 남자 일반부에서 호원대학교 송준섭이 전북 연합으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호원대학교 소속 강유성 선수가 씨름 장사급 140㎏ 종목, 박숙현 에어로빅 소속 송종근 선수 등 4명이 에어로빅 일반부, 서해대학교 소속 석인규 선수가 정구 남자대학부 개인단식, 호원대학교 소속 이지희 선수가 펜싱 에삐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기간 내내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태창 상임부회장 및 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경기장 곳곳을 방문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강임준 시장은"오는 10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대내외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안전과 숙박업소 및 음식점 위생 시설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대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방역 '총력'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8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가금류 사육농가 전체 예찰과 집중적인 소독을 당부했으며 이상 가축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역을 강조했다.

구제역 차단 방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대비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도 AI 차단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19일간 의정 마무리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19일 제212회 익산시의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9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조규대 의장은 집행부에게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수시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윤영숙, 강경숙, 임형택, 김수연, 박철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익산시 체육회의 불법·부당한 임원진 구성, 조직 구성, 예산집행 등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제99회 전국체전 되짚어보기

대회 진행 '원활', 경기장은 '완벽'

구축한 인프라… 체전 후 시민복지 이어

경제 · 문화 · 화합 등 세마리 토끼 잡아

'천년숨결 익산에서, 하나 되는 전국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졌던 제99회 전국체전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뜨거운 열전을 마치고, 18일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99회 전국체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7개 시도와 전 세계 18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약 3만 명이 참가했으며, 선수단을 포함해 전국체전 기간 동안 약 5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약 9만 여명이 익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 받았다.

▲원활한 대회 진행, 완벽했던 경기장 '칭찬일색'

제99회 전국체전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73개 경기장에서 총 47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육상, 펜싱 등 12개 종목이 익산 종합운동장을 포함해 20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특히, 많은 체육관계자들은 육상경기를 포함해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이 완벽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유관기관의 도움도 컸다. 익산경찰서 1,220명(경찰 692명, 의경 528명), 익산교육지원청 1,140명, 익산소방서 119안전센터운영 431명, 소방차량 61대, 익산시체육회 1,000여 명이 도로교통 경기장 질서 및 경비, 성화 봉송, 개·폐회식 지원 등에 투입되어 원활한 대회운영을 도왔다.

▲체전으로 구축한 인프라, 체전 뒤엔 시민복지로 이어져

축구 경기장으로 이용된 배산축구공원과 금마축구공원은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철인3종 경기장으로 이용된 웅포 금강변 일원에 대하여 토목공사 및 부표 설치, 검도 경기장으로 이용된 익산고 체육관은 마루 샌딩 및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지는 등 이번 종목별 경기장 보수로 전국체전 이후 익산시민들의 체육공간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시는 다수의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체전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총 12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117건의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했다. 익산대로, 선화로, 무왕로, 하나로 등 26개 노선(94㎞)의 도로 재포장 및 차선 도색이 이루어졌고, 서동로, 인북로, 평동로 등 12개 노선(23㎞)의 노후 인도를 정비하여 전국체전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들이 겪고 있던 불편마저 해소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마리 토끼 다잡았다, 경제체전, 문화체전, 화합체전

익산시는 '경제체전'을 모토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작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주시보다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익산 종합운동장이 전북도내 유일한 제1종 공인 육상경기장으로 거듭났다. 또한, 백제문화유산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9월과 10월 중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2,000여명의 시민서포터즈와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익산시 82개 단체가 모인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 등 약 1만여 명이 하나가 되어 익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체육회 문제점 자체감사 실시

익산시가 익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론된 익산시 체육회 문제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자체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체육회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익산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자체 감사부서 및 관련국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체육회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